

세계 낙농 유가공산업 동향

백 종 희

〈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I. 머리말

우유와 유제품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영양섭취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우유의 국내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 및 유럽의 일부국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할 때, 낙농품은 무역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의무면제도록 한다는 웨이버조항에 따른 유보조치를 허용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에 따라 여태까지 적용해 온 낙농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유화가 현재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낙농품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1993년에 시유와 발효유가, 1994년에는 요구르트와 치즈의 원료인 커어드가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으로 공고되어 있다. 이

처럼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 상대국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 손자병법의 방법처럼 여기서는 우선 외국의 시장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각국의 우유생산과 소비

1. 우유

세계 각국의 우유는 생산형태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 1991년 세계식량기구(FAO)의 추계에 의하면 젖소의 우유생산량은 4억6천5백만톤이었다. 젖소 이외에 물소, 양, 염소 등에서 생산된 우유는 약 6천2백만톤이다. 젖소우유의 주생산지로 유럽공동국가에서 1억6백만톤, 미국에서 6천7백만톤 그리고 이전의 소련인 독립국가연합에서 5천2백만톤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우유생산량은 1980

년대의 증가추세에서 반전되어 1991년에는 전년대비 3%가 감소한 것이다. 이와같이 감소한 이유는 유럽공동체국가에서 생산할당제(Quota)에 의거, 생산을 인위적으로 감축시켰으며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으로 우유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소련의 경우는 1991년에는 전년대비 약 8%(8백만톤)가 감소했다.

유럽공동국가를 제외한 서구의 국가들의 우유생산량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농가소득지지를 하는 대신에 공급조절을 했기 때문에 우유생산량이 정채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젖소와 낙농가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낙농경영기술의 발달로 인해 젖소 두당 우유생산량은 증가하여 젖소와

낙농가수의 감소에 불구하고 총우유 생산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의 우유생산량은 약 45% 증가하여 6천9백만톤에서 1억톤에 이르게 되었다<표 1>.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장기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유제품의 자급률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유생산량은 전세계의 0.4%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인구의 0.8%인 것과 비교하면 우유생산량이 아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생산방법이 다양함에 따라서 우유생산비와 두당평균 생산량은 크게 차이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는 계절에 따른 초지에서의 사육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많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기후적인 요인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젖소를 축사 안에서 사육하는 형태를 취하며, 일정한 산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곡물과 배합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북반구 국가들의 곡물사료공급 사육형태는 초지에 의존하여 조사료 위주의 젖소를 사육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 비해 젖소의 두당 산

유량이 높다. 그러나 북반구 국가의 우유생산비는 남반구 국가들에 비해 높다. 이러한 국가간의 생산비의 차이는 개개 국가들에게 낙농가가 수취하는 원유가격의 차이로 나타

난다.

예를 들어 원유 Kg당 뉴질랜드 낙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은 1991년 114원인 반면에 같은 영연방인 영국의 낙농가는 236원을 받는다. 농가수취가격

<표 1> 세계 여러나라의 우유생산량

(단위 : 천톤)

나라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영	벨	국	15,797	14,950	14,551	14,339	14,551	14,031
		기	3,636	3,473	3,379	3,480	3,388	3,343
덴	마	아	4,911	4,660	4,538	4,547	4,542	4,441
		크	26,012	24,932	24,102	23,674	24,146	23,298
프	랑	스	24,196	22,181	21,647	21,931	21,474	21,450
		독	5,478	5,388	5,196	5,266	5,268	5,209
에	이	레	8,456	8,628	8,727	8,492	8,286	8,401
		아	12,346	11,342	11,048	10,923	10,766	10,574
네	덜	란	449	486	475	518	528	561
		스	4,611	4,548	4,377	4,485	4,502	4,347
포	루	투	1,100	1,159	1,232	1,345	1,432	1,528
		갈	106,992	101,747	99,272	99,000	98,883	102,126
유	러	공	7,719	7,567	7,560	7,776	7,248	4,961
		동	2,380	2,260	2,225	2,219	2,243	2,210
오	지	리	3,049	2,946	2,994	3,073	2,970	3,056
		스	2,997	2,778	2,612	2,623	2,698	2,416
핀	란	드	3,427	3,370	3,356	3,420	3,433	3,130
		덴	7,008	6,915	6,957	7,094	6,924	5,821
체	폴	코	15,778	15,532	15,450	16,200	15,860	14,520
		드	102,173	103,400	106,800	108,529	108,700	96,000
캐	나	다	7,925	7,986	8,229	7,840	7,900	7,240
		국	65,037	64,732	65,840	65,466	67,260	67,369
멕	시	코	8,000	8,971	8,830	8,970	9,330	10,200
		질	11,600	13,300	13,947	14,518	15,000	15,300
아	르	헨	6,296	6,582	6,168	6,725	6,400	6,200
		티	7,458	7,333	7,608	8,060	8,190	8,260
일	한	국	1,159	1,418	1,635	1,764	1,752	1,741
		국	2,860	3,301	3,660	3,995	4,361	4,816
인	도	방	19,500	21,200	22,000	24,000	26,700	27,000
		나	2,200	2,410	2,557	2,641	2,725	2,730
남	케	질	1,740	2,055	2,250	2,295	2,320	2,189
		랜드	7,707	7,222	7,408	7,192	7,536	7,749
뉴	호	주	6,177	6,456	6,298	6,232	6,413	6,661
		호	462,533	460,642	465,420	470,591	477,565	464,468
세계총계 (FAO)								

은 우리나라에 비해 선진국의 대부분이 낮으나 단지 핀란드, 스위스, 일본만이 자급률 상승과 농가소득지지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농가에 게 지불하고 있다<표 2>.

2. 유가공품

최근에 선진국의 유가공품의 공급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은 감소된 반면에 전지분유와 치즈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량의 감소는 유럽공동체국가의 우유 공급감소와 소비자수요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버터의 일인당 소비량은 계속 감소한데 비해 치즈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한 다이어트 식품수요의 증대로 저지방 유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일반 유가공품의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시유와 요구르트 등의 신선유가공품의 수요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버터생산량을 살펴보면 구소련과 미국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주요생산국이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표 3>.

탈지분유 역시 버터와 비슷한 생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986년 이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표 4>.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요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과 1990년에 생산은 증가했다. 이러한 이유는 전지분유와 연유생산 대신에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탈지분유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1993년 국제시장의 동향은 계속 불투명한 상태인데,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의 우유생산할당제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구동독에서는 시유 등의 제품수요가 증대되는 반면에 도매가격은 통독에 의한 환율 및 경제제도의 변환으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것과 함께 대규모의 정부재고는 이들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있다. 1992년까지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요량은 유럽공동체와 서구국가들에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표 2> 주요국의 농가 수취가격

나라	연도	해당국의 화폐단위/100Kg		원화로 환산/Kg
		1990	1991	1991
벨기에	기	1,100.0	1,050.0	225
덴마크	마	268.0	262.0	299
서독	아	63.2	59.9	264
프랑스	페	3,850.0	3,600.0	252
에이	랑	185.4	181.3	235
이탈리아	이	19.2	18.1	214
네덜란드	탈	59,893.0	59,750.0	353
영국	덜	65.7	67.5	264
(구) 동독	란	17.8	18.2	236
유럽공동체	동		49.6	219
스웨덴	체			260
핀란드	평	297.4	287.5	347
스위스	웨	258.6	265.3	480
오스트리아	란	103.3	103.7	531
미국	위	545.0	553.0	346
캐나다	지	30.3	27.0	214
한일	나	47.5	48.0	334
뉴질랜드	국	36,400.0	38,300.0	383
호주	다	8,910.0	8,950.0	511
	국			511
	본			511
	드			114
	주			114
	주			174

예상된다.

버터와 탈지분유가 공급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감소는 세계 버터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80년대에는 버터와 탈지분유가 세계시장에 덤핑판매되는 대표적인 유제품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고량의 감소로 인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정한 최저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990년까지 구소련(USSR) 즉 현재의 독립국가연합(CIS)은 버터 교역량의 40%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자유시장가격 정책이 도입되고 독립국가연합(CIS)내의 소비자 보조자금 지불제도가 철폐됨으로써 국내버터 수요가 감소되었고,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의 양이 감소했다. 독립국가연합(CIS)은 여전히 국내 유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버터수입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서구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버터가 구소련(독립국가연합)에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럽공동체 국가와 미국의 버터재고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버터와 탈지분유의 생산량이 세계의 모든 국가에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표 3〉

주요국의 버터생산량

(단위 : 천톤)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나라							
영	국	220.4	174.9	139.5	129.0	139.6	111.2
덴	마	112.0	96.2	93.8	92.3	93.3	70.2
프	랑	619.2	563.1	512.7	511.8	527.5	470.0
독	일	565.8	464.3	391.8	398.4	393.4	393.1
에	이	154.0	134.4	123.9	139.1	148.2	140.1
네	텔	292.9	233.8	214.9	214.9	214.3	200.2
유럽공동체	계	2,178.7	1,865.8	1,665.0	1,692.5	1,742.0	1,618.8
(구)	동	326.5	308.8	305.2	312.3	272.1	139.4
체	독	156.1	149.2	148.3	156.2	158.7	132.8
폴	코	259.8	264.4	266.9	289.7	271.4	190.7
(구)	드	1,700.0	1,794.0	1,755.0	1,716.0	1,728.0	1,600.0
미	소	547.8	505.0	543.5	571.7	1,728.0	1,600.0
캐	련	101.1	95.3	104.3	97.4	99.4	96.3
호	국	100.5	102.8	87.4	101.4	101.8	101.8
뉴	다	257.7	244.0	259.8	263.8	279.2	269.5
질	주	87.7	68.9	68.5	78.4	76.2	75.9
일	드						
한	본	2.9	3.8	4.1	6.9	5.1	4.3
	국						

치즈의 생산량은 각국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표 5〉.

치즈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원산지인 유럽공동체국가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생산량은 괄목한만하고 가공치즈의 생산은 미국과 구소련이 세계생산량의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가지 치즈가 개발됨과 함께 치즈를 이용한 식품의 종류가 증대함에 따라 세계각국의 치즈생산량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III. 각국의 낙농환경과 정책

세계 각국의 유가공품생산

과 정부정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제한, 정부구매에 의한 가격지지 그리고 재고처분을 위한 보조금지급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국내유가공품가격지지를 함으로써 그들의 유가공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유가공품은 국제가격 추세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식량자금률의 증대와 농촌개발이라는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제교역과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정책수단에 의거해 설정된 우유와 유

제품의 높은 가격은 국내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공급은 증대시킨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이들 많은 선진국은 유제품시장의 경쟁적인 요소는 제거시키고 자급률의 증대와 함께 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 정부의 보조에 의한 재고량을 처분하는데 급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재정적인 이유때문에 과잉생산되는 유제품을 원유에 대한 생산할당(Quotas)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고량의 증대를 억제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유럽공동체국가에서 수출보조금지급액 감소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중·단기적으로 국제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소득지

정책, 수출보조금 지급과 시장 접근제한 등과 같은 정책들은 유제품의 국제시장을 왜곡시킨다. 참고로 이와 같이 왜곡된 국제시장에 우리나라의 유제품 시장개방을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상대국에서 수출보조금지급에 의거한 덤핑판매에 의한 유제품 수입은 우리나라 유제품시장가격체계를 혼란시키고, 이로 인해 국내 유가공업계와 낙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된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신청에 의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산업피해판정의 조사 및 행정조치가 취해지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낙농가 및 유

업체가 상당히 피해를 본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공동체의 생산할당제에 의한 제한 물량은 1984년 이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계속 변해왔다. 신규로 가입되는 국가를 포함한 유가공품의 자급률과 유럽공동체의 기금 및 농민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따라 할당량의 규모를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가 결정된다. 1992~93년의 할당량은 1억4백만톤인데 이는 전년대비 약 2%감소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할당제 하에서 생산한 우유는 낙농가에게 첫째 상호수입쿼타제 이외의 교역물량에 대한 수입관세부과, 둘째 수출보조금 지급, 셋째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정부의 구매등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지지해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공동체위원회(EC Commission)에서는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에 시장개입을 위해 버터와 탈지분유구입시의 최저가격을 결정한다.

유럽공동체위원회에서 설정한 최저가격은 연평균 입찰가격의 90%수준에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재고를 구매한다. 각국에서는 도매시장가격이 가격지지 수준의 92%이하로 2주간 계속될 때 구매에 나선다. 탈지분유는 생산절정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시장가격안정을 위해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표 4〉 주요국의 탈지분유 생산량

(단위 : 천톤)

나라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영 프 독	국	267.6	196.1	136.3	132.9	164.3	133.3
	스	674.4	551.4	437.4	443.2	523.7	407.4
에 네	일	620.2	452.6	386.8	434.6	436.7	431.6
	레	154.8	129.0	100.2	141.5	195.0	183.1
유럽공동체(구)	네	167.2	93.2	81.8	78.8	64.2	49.3
	델	2,092.0	1,580.9	1,269.8	1,382.9	1,573.7	1,341.1
체	계	116.4	109.1	113.1	116.3	125.5	90.6
	동	116.0	116.4	117.5	104.8	73.0	65.3
폴	체	161.2	161.9	158.4	174.4	174.0	147.4
	코	606.0	643.0	690.0	730.0	750.0	
미	란	590.7	472.2	442.5	395.2	394.6	386.9
	드	105.1	101.6	109.7	95.1	93.1	77.3
캐 호 뉴	소	122.9	130.0	110.0	128.1	142.8	147.0
	국	159.5	161.4	163.2	175.2	157.1	139.1
일	다	183.7	152.1	159.5	177.8	178.5	181.3
	주	6.7	8.7	9.2	18.8	12.3	10.5
한	랜						
	드						
	본						
	국						

입찰방식에 의거 구입한다. 탈지분유의 일정량 즉 1992년 경우는 10만 6천톤이 일정한 지지가격수준에 의거 구매되었다. 그 이후에는 유럽공동체위원회에서 지지가격의 90%수준 정도로 설정한 가격으로 구매된다.

유럽공동체위원회에서는 개별기업의 저장지원방법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계절진폭을 완화시킨다. 생산은 상반기 6개월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는 하반기 6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저장시 지원방법은 구매가격에 이자율 보상, 저장에 따른 고정비와 변동비 보상이다. 이러한 생산할당제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국가의 우유생산량은 매분기(3개월) 평균 2천5백만톤이 과잉생산된다. 이 중 9백만톤이 가격지지되어 버터 또는 탈지분유로 제조되어 국내가공업자 또는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된다. 이외의 물량은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어 해외에 버터 또는 탈지분유의 형태로 수출된다.

미국정부 역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가격지지제도를 통해 낙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 미국농업법(Farm Bill)에 의거 1995년말까지 우유 1Kg당 미화 22센트(한화 158원 : '90년환율기준)로 최저지지가격을 결정했으며 정부는 상품금융회사(Com-

<표 5>

주요국의 치즈생산량

(단위 : 천톤)

나라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영	국		268.6	263.3	296.8	281.5	311.6	298.0
덴	마크		254.0	272.3	259.9	276.7	295.0	286.7
프	랑스		1,231.9	1,252.9	1,290.1	1,325.6	1,355.3	1,388.7
서	독		923.0	954.6	1,007.7	1,050.2	1,151.1	1,179.9
이	탈리		580.7	595.1	618.5	606.1	592.6	601.6
네	덜란		545.4	563.5	572.7	580.8	604.8	622.1
유럽공동체	계		4,056.0	4,148.9	4,306.1	4,392.7	4,541.5	4,655.0
(구)	동독		235.0	248.8	256.3	257.4	139.1	66.0
스	웨덴		112.9	114.0	122.7	116.9	115.8	114.6
스	위스		128.6	125.4	127.6	130.4	129.7	134.3
체	코		202.0	215.8	227.6	232.8	234.0	220.0
폴	란드		390.0	424.8	391.6	413.8	398.0	300.0
(구)	소련		1,853.0	1,903.0	1,974.0	2,056.0	2,112.0	1,900.0
미	국		2,370.4	2,413.4	2,509.1	2,530.8	2,744.5	2,724.4
캐	나다		225.6	254.3	252.4	250.3	253.4	262.1
호	주		168.2	181.4	180.2	184.7	173.9	183.5
뉴	질랜드		115.8	123.7	130.9	121.3	118.9	135.7
일	본		73.0	76.4	81.7	84.6	81.1	88.5
한	국		0.7	2.1	5.1	4.8	6.7	8.5

modity Credit Corporation : CCC)를 통하여 동의된 가격으로 버터, 체다치즈 그리고 탈지분유를 구매키로 했다. 미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은 버터와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예를 들면 버터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버터지지가격을 내리고 탈지분유의 지지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버터생산을 억제한다. 위의 지지가격은 각년도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하는데 1992년에는 이미 우유가격이 이 목표 지지가격 수준에 있으므로 위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미국정부역시 예산 제약으로 인해 생산조정을 하는데 이는 생산자에게 1995년까지 경우에 따라 우유 1Kg당 약 1~2센트(한화8~15원)의 세금을 징수하며 전년도 수준에서 납유한 낙농가에게는 이 세금을 환급해 준다.

미국의 국내가격은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22조에 의거 수입쿼타제도에 의해 조정된다. 미국은 체다치즈와 카제인을 수입쿼타에 의해 수입한다. 이 수입쿼타에 의거 11만톤의 치즈가 수입될 때까지는 어떠한 체제를 가하지 않는다. 미국은 80

년대 중반 탈지분유 공급이 수요량 이상으로 증대하여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의 식량원조와 젓소 도축장려정책으로 탈지분유의 재고를 감소시켜 1980년대 후반에는 다시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버터시장의 수급균형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표 6).

일본의 1960년대초 낙농정책은 자급률 상승과 농가소득 지지의 두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우유생산량은 유가공업체와 동위한 내부적인 생산할당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농가는 이렇게 규정된 생산량을 추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

반면에 동의된 생산량은 지정된 가격과 정부의 부족지불방법에 의거 가공에 사용된다.

시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역간 원유의 수송량(북해도에서동경)에 대한 비공식적인 규제에 의거 생산자의 수익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한다.

버터, 탈지분유와 연유등의 유제품은 거래기준가격제도에 의거 지지를 받는다.

기준거래가격제도에 의거 결정되는 안정지표가격은 제조업자의 경비와 이윤을 기준거래가격에 합산한 가격이다.

정부는 축산진흥사업단으로 하여금 시장가격이 기준거래가

격에 근접하도록 재고관리를 한다. 시장가격이 기준거래가격의 90~104페센트 범위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구매, 저장하거나 판매한다. 필요에 따라 일본의 축산진흥사업단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된 물량을 방출하기도 한다. 거래기준가격제도를 유지키 위해 버터, 탈지분유, 휘이 등의 유제품이 축산진흥사업단을 통해 수입된다. 일본은 치즈, 사료대용유, 조제분유, 기타전지분유 등의 유제품 순수입국이다. 가공을 위한 자연치즈와 전지분유는 수입쿼타에 의해 수입된다.

1990년이전에 독립국가연합과 동구국가들은 정부의 중앙계획경제하에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법으로 유제품의 자급이 이루어 졌다. 1990년과 1991년의 경제개혁은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급격한 삭감을 야기했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수요감소를 초래했다. 더우기

정부는 수출을 꾀했다. 그러나 심한 인플레이션하에서 농가의 문전가격은 일반물가 상승과는 시차를 가지게 되어 즉 타물가에 비해 낮은 속도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생산 역시 감소했다. 이것이 수출이 감소하게된 원인이다. 결국 낙농가의 소득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체코, 폴란드 등은 유럽공동체국가들을 모델삼아 생산자가격을 지지해 줌에 따라 생산량이 오히려 증대했다.

IV. 각국의 유제품 수출입

1. 교역현황

국제시장에서 교역되는 유제품의 양은 원유환산기준으로 약 3천만톤가량으로 전세계 우유생산량의 6%를 점유한다. 교역되는 품목은 버터, 치즈, 분유, 카제인과 연유제품이다. 개개품목별로 살펴보면 버터와 같은 제품은 상당히 많아서 생산량의 약 15% 정도가 교역되기도 한다.

〈표 6〉 유럽공동체와 미국의 유제품 수매재고량

(단위: 천톤)

제품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버터	유럽공동체	1,283.3	859.9	102.5	20.3	250.8	260.8	161.6
	미국(CCC)	67.7	29.2	63.9	71.0	160.7	218.5	174.4
탈지분유	유럽공동체	771.6	473.1	7.1	4.8	333.1	420.8	71.9
	미국(CCC)	211.1	24.3	1.0	-	45.2	59.8	2.7

주: 각년도 12월말 기준임. 자료: Agra Europe * : 9월말 기준임.

이러한 교역량은 각국의 낙농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각국의 낙농정책의 목표는 인위적인 높은 국내가격의 설정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해 줌과 동시에 자급률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수입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용치 않았음으로써 가능했다.

최근에는 상호 수입쿼타량 설정과 기타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협상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호주는 유럽공동체와는 3,000톤의 치즈를 그리고 미국과는 4,000톤의 치즈와 600톤의 탈지분유 수출에 대한 쿼타를 상호협약하고 있다. 유럽공동체국가들은 유제품의 세계수출의 약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독립국가연합)은 1990년 특히 버터의 수입량이 막대하여 세계시장의 버터수급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며 보조금 지급에 의한 과잉생산물을 식량원조의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본법에 의거 95년까지 국제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유제품량을 공급하리라 예견된다.

뉴질랜드의 우유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나 세계시장의 2번째 큰 수출국이다. 1991년에 세계시

장의 유제품수출의 24%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는 뉴질랜드 생산량의 약 80%를 수출한 것이다. 호주는 세계시장의 약 9%를 수출하고 있다(그림 1).

세계시장에 우유를 수출하는 나라는 가격지지정책을 쓰는 캐나다와 유럽공동체를 포함한 서유럽국가들이다. 그외 동구국가인 체코와 폴랜드는 소비자보조금을 수출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유제품의 수입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0년 미국이 가장 많은 2,115만달러이고 그 다음이 유럽, 아프리카, 중동국가의 순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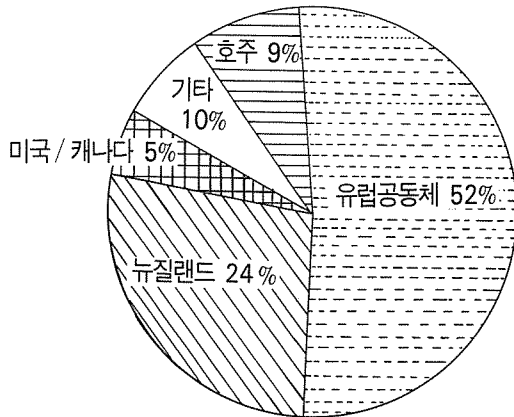
미국은 유제품의 수출국이기도 하나 금액면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순수입국이며, 유럽공동체국가들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순수출국이다.

유제품의 수입국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다. 버터의 경우는 소련이 전세계교역량의 35~45퍼센트를 구입하고 있다. 1991년 전세계 버터교역량은 737천톤인데 구소련의 수입량이 이 중 41%인 299천톤이었다. 그리고 기타 북아프리카의 나라인 모로코, 알제리아와 중동국가 그리고 멕시코가 버터의 주요수입국이다. 치즈는 유럽공동체국가(EC), 뉴질랜드와 호주가 주수출국이며, 미국

이 주요 수입국으로 11만 1천톤의 치즈를 상호쿼타 조정에 의거해 수입하고 있다. 이 중 4만 8천톤이 유럽공동체국가에게 그리고 유럽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에게 2만 5천톤의 쿼타가 배정되어 있다. 미국 이외에 일본과 중동 그리고 북유럽이 주요 수출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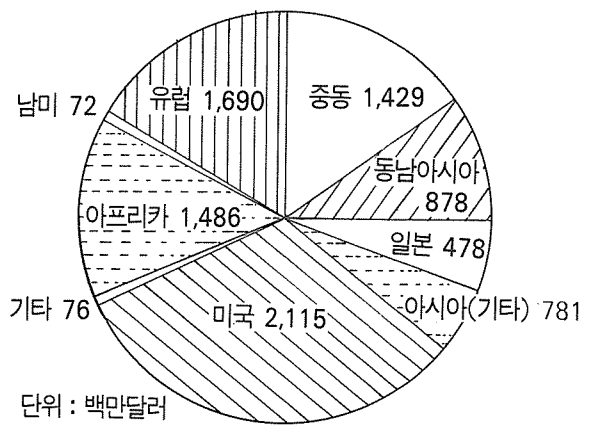
1991년 전세계의 탈지분유 교역량은 653천톤이었다. 세계 탈지분유시장에서 유럽공동체가 전세계의 35%를 점유한 가장 큰 수출국이며, 그다음이 27%를 점유한 뉴질랜드 그리고 20%를 점유한 호주순이다. 미국은 전체 탈지분유 수출점유율이 15%인데 이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식량원조계획에 의거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중요상업적 교역국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대용유로서 탈지분유를 수입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와 동구국가도 탈지분유의 주요공급자이다. 인간의 식량으로 탈지분유를 수요로 하는 국가는 중남미와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이다. 전지분유는 냉장고가 덜 보급된 국가에서 인스턴트화된 형태로 포장되어 소매로 판매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가 역시 주요수출시장이며, 유럽공동체국가와 뉴질랜드가 주요 수출국가이다.

1991년 전지분유의 교역량



주 : 원유환산 기준임

<그림1>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1991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세계식량기구(FAO)

<그림2> 수입국의 유제품 수입금액, 1990

은 933천톤이었다. 이중 유럽 공동체국가가 64% 그리고 뉴질랜드가 27%를 수출했다. 치즈의 1991년 교역량은 825천톤이었다. 치즈 역시 유럽공동체국가, 뉴질랜드가 주요수출국으로 전체수출량의 56%, 13%를 점유하고 있다. 치즈의 주요수입국은 미국과 중동국인데 미국은 1991년 194천톤, 중동국가는 181천톤을 수입하였다. 카제인은 뉴질랜드와 유럽공동체국가가 주요수출국이며, 미국과 일본이 주요 수입국이다.

2. 국제가격 결정요인

우유와 유제품의 국내가격은 생산과 국내가격지지정책에 따른 비용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시장가격 역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는 쿼타인 경우와 자유경쟁일 경우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수입쿼타량이 설정되

는 경우는 수입국의 국내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입쿼타가 아닌 경우의 국제시장가격은 단순하며, 이 경우는 유럽공동체국가의 생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공동체의 유제품수출가격과 수출보조금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요소는 미국과 유럽공동체국가의 과잉유제품 생산에 따른 재고보유 및 이의 처분에 따른 국제가격의 변동 그리고 남반구 국가의 계절적인 생산시기가 다른데에서 오는 가격변동을 들 수 있다. 미국유제품의 주기적인 국제시장에서의 처분은 세계시장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국제시장에서 예를 들면 탈지분유와 같은 품목의 가격상승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미국은 목표하는 시장의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수출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수요기반이 확충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산량의 대부분 약 80%를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카제인을 제외한 유제품의 경우 단순히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하는 입장이다(표 7).

1980년대 후반에 유럽공동체국가의 수출보조금의 삭감은 이 기간동안의 탈지분유와 버터의 재고량을 감소시켰고 이는 국제시장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1990년 초반에는 이것과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유럽공동체 국가의 생산증대와 소비정체로 인해 국제시장에의 판매에 주력함으로써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것이다.

유럽공동체국가의 1990년 생산증대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보조금은 치즈를 제외한 유제품의 경우 톤당 약

300달러(한화로 214,380원)를 추가 지원해 주게 되었다. 1991년초반 환율변화는 유럽공동체 국가로 하여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거한 유제품의 최저국제가격 이하로 세계시장에 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삭감해야 했다. 그러나 1991년 9월 환율의 재조정은 버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다시 증대시켰다. 1992년동안 유럽공동체 국가의 수출보조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단지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수출보조금을 11월에 약간 삭감했다.

최근의 유럽공동체의 수출보조금은 국제가격에 대비해서 버터는 약 180%, 탈지분유는 55%를 그리고 전지분유는 약 100%를 지급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유럽공동체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제품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 DEIP)에 의거 수출보조금을 주어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1990년초반 이 계획은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전속도에 의거 약간 재조정하게 되었다.

1992년 유제품의 가격은 1991년에 비해 이러한 높은 수출보조금의 지급 등과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이것은 유럽공동체 국가(EC)

〈표 7〉

유제품의 국제가격

(단위 : 달러.톤)

제품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버터		1,080	1,300	1,725	1,420	1,360	1,375
탈지분유		1,050	1,650	1,800	1,430	1,410	1,575
체다치즈		1,200	1,650	1,900	1,650	1,580	1,700

의 생산감소와 일본의 수요증대에 의한 영향이다. 1992년중반 달러에 대한 유럽통화의 평가절상은 이러한 국제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유제품의 명목 및 실질가격 수준에 비해서 1990년대의 유제품의 국제가격은 낮게 형성되고 있다.

V. 맺는말

세계 각국은 현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낙농산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생산자로부터 탈지분유와 버터의 과잉생산량을 정부가 구매해 줌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어 농가소득을 지지해 주고 있다. 유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에 대해 구매가격기준의 저장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과잉생산 유제품을 국제시장에 판매할 때 수

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가공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낙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줌과 동시에 유제품의 자급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생산자의 원유생산을 제한하는 생산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이 생산할당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 즉 자급률 100퍼센트 근처에서 공급과잉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과대해져서 정부의 재정압박을 일부 해결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유제품의 국제시장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계시장의 변화와 수입자유화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